

배차 앱 이용 안 해도 가맹금 징수 카카오톡 대구본부, '2.3억' 과징금

공정위, 카카오택시 TK 제재 배회영업·다른 앱 사용에도 수수료 카카오톡모빌 "행정소송으로 소명"

카카오택시지역가맹본부가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털모빌리티(이하 디지털)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블루는 카카오톡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톡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톡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은 카카오톡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톡 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털은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톡 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디지털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오톡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털은 카카오톡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털은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톡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은 2020년 1월 ~ 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앱 이용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털이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인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문수 "노동약자 위한 다각적 지원 약속"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 중구 평화시장 방문 경비 근로자 만나 방한용품 전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평화시장은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곳으로, 약 2850개 점포의 청소, 경비, 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사를 표했다. 그는 "평화시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 대표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이 노동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설 앞두고 배추·무 등 공급 확대 총력

농식품부, 폭염 여파 극복 나서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겨울배추 등의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절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의 경우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 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배추 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야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비축물량(3600톤)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에 의한 햇볕대임(일소) 피해가 확산돼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는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수용 배의 날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화 및 수요분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장영진 "새해 무역보험 252조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작년 97조원 역대 최대 중소기업 지원 올해 100조 이상 투입 목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은 15일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과 경제가 산다는 인식 아래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으며, 작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인 97조원을 지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무보는 지난해 역대급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해 전체 236조6000억원



의 무역보험을 공급,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8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사장은 "특히 7개 은행과 협력해 기존 무역금융보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은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실시해 9880억원의 우대금융을 제공했던 것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존 협력 은행의 추가 출연에 더해 최초로 민간 기업의 출연도 추진해 우대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신선했던 '중견

기업부'에 '중견기업 2팀'을 추가해 확대 개편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수출금융의 영역을 기존 상품수출 중심에서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중소·중견기업의 K-컬처글로벌화를 선도할 신상품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형 해외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외지사 업무를 기존의 채권회수, 신용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발주처 앞 기업 마케팅 등 수주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그리드 산업, 원전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안산 소재 비츠로이엠 현장방문 "글로벌 진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부가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경기도 안산 소재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분야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

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2023년 실적(104.5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2배 이상 확대

산업부,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 경찰청·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실시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유통 시기,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해 4~6월(여름용품), 7~9월(위해 우려 품목), 9~11월(겨울용품) 등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